코로나 장기화 공항 이용객 보니

광주공항 ‘웃고’ 무안공항 ‘울고’

광주공항 190만명 이용 ‘역대 최다’ 연말 208만명 예상
국내선 하루 48편 운항·이용요금 저렴해 충청서도 이용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90만명서 1만8797명으로 급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광주공항 연간 이용객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공항 이용객은 이날 현재 190만7053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명(21.8%)이나 증가했다. 연말까지 누적 20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2만명을 넘어 개청 이후 연간 최다 이용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국내선 노선이 증편되고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공항은 제주, 김포, 양양 3개 노선에 아시아나항공 등 5개사가 취항 중이며, 제주노선은 지난해 동계 대비 일일 출·도착 2편이 늘어난 일일 32편으로 다양한 시간대 운항을 제공해 여객 편의성을 높인 점도 승객 증가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운항이 중단됐던 양양노선도 올해는 중단 없이 운항되고 있다.

진에어 항공사의 경우엔 광주~김포·제주 노선을 각 2회씩 증편해 지난달부터 출·도착 기준 김포노선은 매일 6회, 제주노선은 매일 8회씩 운행하고 있다. 진에어는 증편기념으로 올 연말까지 광주~김포노선을 티머니페이로 결제 시 1만원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공항은 코로나19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출발장과 도착장 모두 발열감지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에스컬레이터와 화장실 등 여객 접점지역에 대해 매일 수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사 전 지역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공항은 제주, 김포, 양양 등 노선편이 다양하고 저비용항공사 이용비용이 저렴해 전남, 충청 등 인근 시도민의 이용률도 높다”며 “공항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이용객들이 코로나 걱정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국제선 운항 제한 등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무안공항 이용객은 89만5410명에 이르렀으나 2020년 11만293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 10월 말까지 이용객은 단 1만8797명에 그친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 지원기관 현판식’에 참석해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복지관 이용인 등과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도 지원

남구·광산구 장애인복지관서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연중무휴로 보살피며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가 ‘1대1 낮 활동 다중 지원 서비스’를 추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섭 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복지관 이용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낮 활동 지원기관으로 추가 선정된 남구장애인복지관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이날 현판식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낮 활동 지원기관 내엔 그룹활동실과 개인활동실, 심리안정실이 마련돼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4명씩 총 8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을 동반해 시설 또는 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이용신청을 하면 (062-714-3352, 인https://www.broso.kr/) 적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달장애인 1명당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연결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선택활동 ▲일상생활 활동 ▲감정표현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환지원팀의 행동치료 지원 및 정기적인 외부전문가의 행동자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대장정 마무리

한 달여간 4만4000여명 만나…29건 현장 답변·175건 검토

김영록 전남지사가 22개 모든 시·군을 돌며 코로나시대 줌(ZOOM)과 유튜브를 활용, 도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지난 11월 25일 완도군을 끝으로 ‘김영록 지사와 함께하는 22개 시·군 도민과의 대화’ 대장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여파로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도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위주로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줌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 도민이 더 늘어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대화에 참여한 도민은 현장 4000명을 포함해 4만4000여명에 이른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주요성과 및 시책을 설명하고 시·군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직접 대화를 주재하며 답변했다. 다소 곤란한 질문도 경청하며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204건 160억원의 사업비 지원 건의가 있었다. 시·군 재정지원 요청사업이 23건 110억원, 도민 건의가 181건이다. 이 가운데 김 지사의 단순한 견해를 묻거나 시·군에서 추진하기로 해 현장 답변 종결된 29건을 제외한 175건은 도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신항 해상풍력 공공인프라 확충한다

도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공모 선정…국비 105억 확보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5억원을 확보, 해상풍력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목포신항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장비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게 됐다. 이로써 8.2GW 해상풍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비 10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30억원 규모다. 전남도와 목포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목포신항만운영(주)이 공동 참여해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목포신항 내 ▲대형부품 야적·조립 지원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 부품 창고 구축 ▲해상풍력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업 지원 및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해상풍력 물류관리 프로그램’, ‘단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국비 65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포함된 해상풍력 기자재 항만운송 인프라 및 통합관제 장비 구축에 이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는 목포시와 함께 R&D 기술과 신형 장비를 갖춘 종합 기업지원 플랫폼센터를 목포신항에 건립해, 해상풍력 유지보수센터, 기업공동연구센터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열어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30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뤄지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전남 바다 전역에 멸치, 조기, 갈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만큼 어업활동보호구역이 1만2505㎢(39.7%)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등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국내 최대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을 3078㎢(9.8%)로 넓게 지정했다.

주요 해수욕장, 마리나항만구역(목포, 여수 웅천)과 레저낚시 활동이 많은 여수 거문도 주변 및 여수 남쪽 해상 886㎢(2.8%)를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양항·여수항 등 무역항 4곳과 연안항 11곳, 주요 항로 389㎢(1.2%)를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했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어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지역협의회 논의를 두 차례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계획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